

두보 연작시의 장법 연구*

이 영 주**

1. 머리말

연작시는 몇 수의 개별시가 동일한 詩題 아래 조합된 시이다. 연작시를 이루는 개별시가 각기 독립적으로 온전한 시상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개별시 상호간에 내용상의 연계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연작시라 할 수 있다.

두보는 다수의 연작시를 지었는데, 대다수의 경우 계획된 구상에 따라 각 개별시의 시상이 안배되고 연계되어 하나의 완전한 통합을 보인다. 즉 연작시 전체를 묶어서 한 편의 시처럼 보이도록 치밀한 장법을 구사한 것인데, 이런 연작시는 두보 이전의 시인에게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두보는 시의 내용이건 형식이건 간에 질서 있고 통합된 구조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연작시 전체를 묶어 한 편의 시처럼 짓고자 한 데에도 그의 이런 作詩 원칙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2007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자유과제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2. 시상의 연결

1) 聯珠格 방식의 시상 연결

두보 연작시의 장법이 조직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전의 두시 주석가들이 이미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적하였다. 〈散愁二首(시름을 풀다)〉의 장법에 대한 王嗣奭의 다음 평을 보자.

제목에서 '시름을 풀다'고 하였다. 그래서 앞 수에서는 총괄하여 시상을 일으키고 뒤 수에서는 총괄하여 시상을 맺으면서 모두 자기의 심사를 이야기하였다. 중간에 사도와 상서의 이야기로 위와 아래를 이어 두 수의 시가 단지 한 수의 시인 듯하니, 여기서 장법의 묘함을 볼 수 있다.(題云散愁, 故前章總起, 後章總結, 皆說自己心事. 中間將司徒尙書聯絡上下, 兩章只如一章, 此見章法之妙.)¹⁾

왕사석이 밝혀낸 장법상의 妙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산수이수〉를 살펴보자.

[제1수]

久客宜旋旆 오랜 나그네 생활 돌아가야 마땅하나
興王未息戈 부흥의 군주께서 아직 전란을 멎게 못했네.
蜀星陰見少 축 땅의 별은 흐려서 드물게 보이고
江雨夜聞多 강에 내리는 빗소리는 밤이라 많이 들린다.
百萬傳深入 백만의 군사 깊숙이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와
寔區望匪他 온 세상이 바라는 것 다를 게 없으니,

1) 《杜詩詳註》卷之九.

司徒下燕趙 사도께서 연 땅과 조 땅으로 내려가
收取舊山河 옛 산하를 거두어 들였으면.

[제2수]

聞道并州鎮 듣자하니 병주를 다스리는
尙書訓士齊 상서계선 병사들 훈련을 정연하게 시킨다 하니
幾時通薊北 어느 때에야 계북에 통하여
當日報關西 그날로 관서에 알려올 것인가?
戀闕丹心破 대궐을 사모하여 붉은 마음 깨어질 듯하고
霑衣皓首啼 옷을 적시며 백발로 우는데,
老魂招不得 늙은 혼 불러들일 수 없어서
歸路恐長迷 돌아가는 길에 헤맬까 두렵구나.

위 시는 上元 원년(760)에 지은 것으로 사도 李光弼과 상서 王思禮가 속히 반군을 평정하기를 바라는 시이다. 제1수 후반에 이광필을 배치하고 제2수 전반에 왕사례를 배치하여 유사한 내용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두 수 사이에 시상이 연속되었는데, 왕사석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산수이수〉의 두 수 상호간의 연결은 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구조오의 분석에 따르면 제1수는 “시름이 있는 것에서부터 시름을 푸는 것으로 말을 전개했고(從有愁處說到散愁)”, 제2수는 “원래는 시름을 풀려하였는데 여전히 시름을 풀지 못한(本欲散愁, 愁仍未散)” 양상이어서²⁾ 앞 수의 뒷부분과 뒤 수의 앞부분이 내용상으로 동질성을 가진다. 동질성을 가진 것끼리는 黏性이 강하니 당연히 시상은 연결되어 보인다.

구조오는 〈산수이수〉에 대한 왕사석의 분석을 받아들이면서 〈社日兩

2) 《杜詩詳註》卷之九.

篇)도 그와 동일한 경우로 보았다.

두시 중에는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 두 수가 마치 한 수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산수이수> 시는 앞 수에서 사도의 이야기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끝내고 뒤 수에서 상서 이야기로 이어서 시상을 일으켰다. 또 <사일양편> 시는 앞 수에서 동박삭의 이야기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끝내고 뒤 수에서 진평의 이야기로 이어서 시상을 일으켰으니, 모두 장법이 최고로 교묘한 것이다.(杜詩有首尾聯絡, 兩章如一章者. 如散愁詩, 前以司徒收結, 後以尚書接起. 社日詩, 前以方朔收結, 後以陳平接起, 皆章法之最巧者也.)³⁾

<사일양편>을 보자.

[제1수]

九農成德業 농사일이 끝나 공덕을 이루니
百祀發光輝 온갖 제사가 찬란한 빛을 발하는데,
報效神如在 보답하는 의식에 마치 신이 계신 듯하고
馨香舊不違 공물로 제사지내는 것 오래도록 제 때를 어기지 않았다.
南翁巴曲醉 남방의 노인이 파 지역 민요 취하여 부를 제
北雁塞聲微 북쪽 변세의 기러기 소리 희미하게 들리니,
尙想東方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동방삭이
談諧割肉歸 익살스런 농담으로 고기 베어 돌아간 이야기이지.

[제2수]

陳平亦分肉 진평이 또한 고기를 골고루 나누었으니
太史竟論功 태사가 끝내 그 공을 논하였네.
今日江南老 오늘 강남의 늙은이는

3) 《두시상주》 卷之二十.

他時渭北童 지난날 장안의 아이.
 歡娛看絕塞 외진 변세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며
 涕淚落秋風 가을 바람에 눈물 떨어는데,
 鴛鴦廻金闕 조정의 관리들 하사품 받고 궁궐에서 돌아갈 제
 誰憐病峽中 그 누가 협중의 이 병든 사람을 가련히 여길까?

이 시는 시인이夔州에 있을 때 가을 社日의 의식을 보며 쓴 것이다. 사일에는 고기를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다. 이 때문에 고기를 나누는 일화와 관련이 있는 동방삭과 진평을 등장시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동방삭은 황제의 사랑을 받아 고기를 하사받았지만 시인은 사랑을 받지 못해 객지에서 떠돌고 있고, 진평은 사일에 고기를 공정하게 나누어 사마천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나라를 위해 큰 공적을 남겼지만 시인은 아무런 공적도 이루지 못한 채 늙어버렸다는 것이다.

앞 수 미련에 동방삭을 배치하고 뒤 수 수련에 진평을 배치하여 두 수 사이에 시상의 연결을 추구하였으니 장법이 〈산수이수〉와 동일하다. 구조오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두 수가 한 수의 시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구조오는 두 수의 시상이 연결되었다는 사실 만을 지적하면서 한 수의 시처럼 보인다고 하였는데, 시상이 연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한 수의 시처럼 보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전체 시상의 전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 수의 시와 같은 시상 전개를 보이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수의 내용을 축약하여 한 수의 시로 바꾸어 보는 것도 검증의 한 방법이 되니, 축약한 결과 시상이 완성하다면 한 수의 시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을 것이다.

九農成德業 농사일이 끝나 공덕을 이루니

百祀發光輝 온갖 제사가 찬란한 빛을 발하는데,
 尚想東方朔 지금도 생각하하니, 동방삭은
 談諧割肉歸 익살스런 농담으로 고기 베어 귀가했다지.
 陳平亦分肉 진평이 또한 고기를 골고루 나누었으니
 太史竟論功 태사가 끝내 그 공을 논하였네.
 鴛鷺廻金闕 조정의 관리들 하사품 받고 궁궐에서 돌아갈 제
 誰憐病峽中 그 누가 협중의 이 병든 사람을 가련히 여길까?

두 수에서 각각 함련과 경련을 생략하고 수련과 미련만을 남기면 위와 같이 된다. 제1수의 함련은 제사와 관련 있는 내용이니 제1수의 수련으로 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수의 경련, 제2수의 함련과 경련은 모두 자기의 신세에 대한 탄식이니 제2수의 미련으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수의 시를 이상과 같이 축약할 수 있는데, ‘九農’ 두 구로 전체 시상을 이끌고 ‘鴛鷺’ 두 구로 동방삭과 진평의 이야기를 이어면서 시인의 감개까지 담아 시상을 마무리하니 전체적으로 시상의 전개에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두 수의 시가 한 수의 시와 같다는 구조오의 지적은 지나친 평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산수이수〉와 〈사일양편〉 등에 보이는 장법은 왕사석과 구조오가 예로 들지 않은 다른 시에서도 보인다. 일례로 〈觀安西兵過赴關中待命二首(안서의 병사들이 화주를 지나 관중으로 나아가 명을 기다리는 것을 보다)〉시를 보자.

[제1수]

四鎮富精銳 네 진에는 정예병이 많아
 摧鋒皆絕倫 적의 선봉을 꺾는 것이 모두 절륜한데,
 還聞獻士卒 이 사졸들을 천자께 바쳤다는 소식 또 들리니
 足以靜風塵 이로써 풍진을 잠잠케 할 수 있으리라.

老馬夜知道 늙은 말이 밤에도 길을 알고
 蒼鷹饑著人 푸른 매가 굶주린 채 사람에게 붙어있는 듯,
 臨危經久戰 위난에 임하여 오랜 전쟁을 겪었으니
 用急始如神 급한 어려움에 써야 비로소 귀신과 같을 것이네,

[제2수]

奇兵不在衆 기습하는 병사는 많을 필요가 없어
 萬馬救中原 만 필의 말로 중원을 구원할 터,
 談笑無河北 담소 중에 하북을 무시하고
 心肝奉至尊 진실한 마음으로 지존을 받드신다.
 孤雲隨殺氣 외로운 구름은 살기를 따르고
 飛鳥避輜門 나는 새는 진문을 피해 가니,
 竟日留歡樂 종일토록 머물러 즐기건만
 城池未覺喧 성과 해자에서 시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 시는 李嗣業이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 이끌고 온 군대를 보고 군사
 의 용맹함과 이사업의 忠勇을 칭송한 것으로 매 수에 군사 이야기와 이
 사업의 이야기가 섞여 있다. 제1수를 보면 전반의 제3구가 후반의 이사
 업과 관련되고 후반의 제6구가 전반의 군사와 관련되어 전반과 후반이
 조응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반에 군사 이야기를 배치하고 후반
 에 이사업 이야기를 배치한 구조를 취하였다. 제2수는 이와 상반되게
 전반에 이사업을 배치하고 후반에 군사를 배치하였다. 그로 인해 두 수
 전체는 ‘군사-장수-장수-군사’로 시상이 전개된다.

구조오의 말처럼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게[首尾聯絡]’ 시상을 이어가
 는 방식은 한 수의 시 안에서 앞 뒤 시상을 이을 때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 ‘聯珠格⁴⁾’과 양상이 같다. 이처럼 한 수의 시 안에서 사용하는

4) ‘頂真格’이라고도 한다.

시상 연결법을 연작시에서 적용하였다는 것은 두보가 연작시 전체를 한 수의 시처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두보는 세 수로 이루어진 연작시에서도 연주격을 사용하여 정치함을 더하였다. 〈自京竄至鳳翔喜達行在所三首(서울에서 몰래 봉상에 이르러서 행재소에 다다른 것을 기뻐하다)〉를 보자.

[제1수]

西憶岐陽信 서쪽으로 기산 남쪽의 소식을 그리워했지만
 無人遂卻回 끝내 돌아오는 사람 없어서,
 眼穿當落日 눈이 뚫어지라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心死著寒灰 마음이 죽어 찬 재를 붙인 듯 했지.
 茂樹行相引 무성한 나무 길 가는 나를 끌어 주더니
 連山望忽開 연이은 산 바라보니 홀연히 열렸다.
 所親驚老瘦 친한 이들이 늙고 수척한 모습에 놀라며
 辛苦賊中來 반군 속에서 오느라 고생하였구나라고 한다.

[제2수]

愁思胡笳夕 호가 소리 들리는 저녁이면 시름에 빠졌고
 淒涼漢苑春 한나라 궁원의 봄은 처량하였지.
 生還今日事 살아 돌아온 것은 오늘의 일
 間道暫時人 사잇길에서는 잠시만 살 사람.
 司隸章初曙 사례의 전장典章을 처음 목도하니
 南陽氣已新 남양의 기상이 새로워,
 喜心翻倒極 기쁜 마음이 바뀌어 극에 이르니
 嗚咽淚沾巾 흐느껴 울어 눈물이 수건을 적신다.

[제3수]

死去憑誰報 죽었다면 누구를 통하여 알릴 수 있었으랴?
 歸來始自憐 돌아와서 비로소 스스로를 가련히 여기나,

猶瞻太白雪 그래도 태백의 눈을 보게 되고
 喜遇武功天 기쁘게 무공의 하늘을 만났다.
 影靜千官裏 못 관원들 속에서 그림자 고요하고
 心蘇七校前 칠교 앞에서 마음이 살아나,
 今朝漢社稷 오늘 아침 한나라 사직은
 新數中興年 중흥의 해를 헤아리게 되었다.

이 시는 두보가 至德 2載(757) 4월에 장안을 탈출하여 鳳翔의 행재소에 도착하고 그 기쁨을 읊은 것이다. 제1수는 도착하기 전의 이야기가 내용의 중심이고 제2수는 막 도착하고서 본 일과 느낌이 중심이며 제3수는 도착한 뒤의 시인의 바람이 중심이니, 시상이 순차적으로 전개되었다.

두보는 세 수의 시상이 앞뒤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앞 수의 끝 부분에서 다음 수 전반부의 뜻을 이끌어내었다. 먼저 제1수를 보면 제8구에서 ‘반군 속에서 오느라 고생했다’라고 하여 제2수 전반부의 뜻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제2수의 미련을 보면 ‘기쁨이 극에 이르러 도리어 눈물이 난다’라고 하여 제3수 전반부의 뜻을 이끌어냈는데, 그 중 수련에는 슬픈 이야기를, 함련에는 기쁜 이야기를 안배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제1수와 제2수의 미련을 過脈으로 삼아 각각 제1수와 제2수, 제2수와 제3수의 시상을 연결한 것으로, 그 연결이 조직적이면서 정제된 양상을 이룬다.

구조오도 이 연작시 각 수의 시상이 서로 연결되었음을 지적하여, 제2수의 요지 설명에서 “이 수는 위 수의 ‘반군 속에서 왔다’를 이어받은 것이다. 그래서 ‘호가 소리 들리는 저녁이면 시름에 빠졌다’라는 말로 이었다.(此承上賊中來, 故接以愁思胡笳夕.)”라고 하였고, 제3수의 요지 설명에서 “이 수는 위 수의 ‘잠시만 살 사람’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면 누구를 통하여 알릴 수 있었으랴’라는 말로 이었다(此承上暫時人, 故接以死去憑誰報.)”라고 하였다. 구조오의 장법 분석에 따르면 제1수와 제2수의 연결에는 과맥을 사용하고 제2수와 제3수의 연결에는 照應法을 사용한 것이 되는데, 비록 제2수의 ‘잠시만 살 사람’이 다음 수와 조응하기는 하지만, 정제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군데 모두 동일하게 과맥을 사용했다는 분석만은 못하다.

아마 구조오는 기쁨이 극에 이르러 울게 되었다는 말을 기쁜 심사의 표현으로만 이해했을 것인데,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나 모진 고생을 겪은 뒤 기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절로 기쁜 일만 있었다면 아무리 기뻐도 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보는 이 연작시에서 기쁜[喜] 심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슬픈[悲] 심사를 對比하였다. 이 때문에 세 수에서 모두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배치하였으니, 이를 통해서도 ‘울었다’는 말이 결코 기쁜 심사의 표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⁵⁾

2) 시상 연결의 다른 방식

개별시의 시상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연주격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었다.

〈戲贈友二首(장난산아 벗에게 주다)〉를 보자.

5) 연작시에서 뒤 수가 앞 수의 시상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때 그 방식이 〈자경관 지봉상희달행재소삼수〉처럼 연주식인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屏迹三首(자취를 감추다)〉 시처럼 뒤 수가 앞 수의 머리 부분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두시상주》 卷之十 참고)

[제1수]

元年建巳月 원년 건사월
 郎有焦校書 낭관 중에 초 교서가 있었는데,
 自誇足膂力 스스로 자랑하길 등골 힘이 넉넉해
 能騎生馬駒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를 탈 수 있다 하였네.
 一朝被馬踏 어느 날 아침에 말에 밟혀
 脣裂板齒無 입술이 찢어지고 앞니가 없어졌는데,
 壯心不肯已 장한 마음 그만둘 수 없어
 欲得東擒胡 동쪽으로 가 오랑캐를 잡고자 한다네.

[제2수]

元年建巳月 원년 건사월에
 官有王司直 관리 중에 왕 사직이 있었는데,
 馬驚折左臂 말이 놀라 왼팔이 부러지니
 骨折面如墨 뼈가 부러져 얼굴이 먹빛이 되었네.
 驚駘漫深泥 든한 말은 속절없이 깊은 진흙에 빠져버렸으니,
 何不避雨色 어찌하여 비 올 기색을 피하지 않았던가?
 勸君休嘆恨 그대에게 권하나니 한탄하진 마시게나
 未必不爲福 꼭 복이 되지 않을 것은 아니리니.

이 시는 말을 타다 떨어져 부상을 당한 초 교서와 왕 사직, 두 사람에게
 게 준 戲作詩로서 용맹함을 좋아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를 풍자하
 고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수를 보면 제1구에 모두 ‘元年建巳月’이라 하여 동일한 말을 하였
 고 제2구에는 동일한 구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수의 수련만 보아
 도 이 시가 쌍둥이 같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형식상의 유사성은 자
 연히 두 수 사이의 黏性을 확보하여 준다.⁶⁾ 그러나 이러한 형식에만 의

6) 이런 방식은 〈乾元中寓居同谷縣作歌七首〉(건원 중에 동곡현에 우거하며 지은

지하여 유사성을 확보하였다면 너무 도식적이라는 평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두 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2수의 경우 전체 시상이 짜임새를 이루어 완전한 것에 비하여 제1수는 시상이 제대로 결말을 짓지 못한 채 끝나고 있다. 왜냐하면 개두에서 시에서 언급할 이야기를 제시하여 파제하고 본론에서 경물을 묘사하거나 사실을 서술한 뒤에 말미에서 시인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상 전개 양상인데, 제2수는 사실을 서술한 뒤에 그런 행위를 경계하면서 아울러 위로하는 시인의 말이 있어 완전한 구조를 갖춘 반면에 제1수는 시인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내용이 없이 시가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수만 본다면 시의 내용이 미진한 채 끝났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다음 시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한다. 미진하다는 것은 다음에 계속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제1수에서 미진하게 끝난 시상은 제2수 말미에 가서 시인의 생각이 제시됨으로써 비로소 마무리 된다. 이처럼 제2수 말미로 제1수의 내용까지 총괄하게 하고 제1수 끝에서는 이를 보류함으로써 두 수의 연결성을 살렸으니 두보의 안배가 얼마나 치밀한가?

두보는 연작시에서 내용상의 연결을 위하여 用字에도 고심하였다. 즉 字法을 연작시에 활용한 것이다. 〈巴西驛亭觀江漲呈竇十五使君二首(파서역 정자에서 불어난 강물을 보며 두 사군께 드리다)〉를 보자.

[제1수]

노래)에서도 보인다. 이 시를 보면 일곱 수 모두 말미에서 반복되는 어휘와 유사한 구법을 사용하였고, 시작 부분에서도 제4수까지는 유사한 구법을 사용하였다.

宿雨南江漲 오랜 비로 남강에 물이 불어
 波濤亂遠峰 파도에 먼 봉우리 어지럽습니다.
 孤亭凌噴薄 외로운 정자에는 거칠게 솟구치는 물결이 오르고
 萬井逼春容 천가만호에는 격하게 부딪치는 소리가 다가들어,
 霄漢愁高鳥 하늘에는 높이 나는 새 근심하고
 泥沙困老龍 진흙 모래에 늙은 용이 괴로운데,
 天邊同客舍 하늘 끝 객사에 함께 있어
 攜我豁心胸 저를 이끌어 마음을 넓게 해주십니다.

[제2수]

轉驚波作惡 파도가 험해짐에 갈수록 놀라나니
 卽恐岸隨流 기슭이 물결에 떠내려갈까 두려워서인데,
 賴有杯中物 잔 속에 좋은 술 있으니
 還同海上鷗 또 바닷가 갈매기와 함께 합니다.
 關心小剡縣 마음이 찾아가는 자그만 섬현
 傍眼見揚州 눈앞에는 양주가 보이는데,
 爲接情人飲 다정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니
 朝來減片愁 아침나절 작은 근심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는 두보가 파서역 역정에서 두 사군과 술잔을 마주하고서 불어난 강물을 보며 느낀 감회를 표현한 것이다. 구조오는 이 시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1수는 강물의 불어난 경치를 기뻐하며 두 사군과 그것을 구경한 것이고 제2수는 불어난 강물의 기세를 두려워하면서 두 사군과 술마신 이야기라 하였다.⁷⁾ 구조오의 분석을 따르더라도 두 수는 내용상 연결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유사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대비되는 내용도 서로 짝을 이루어 그 자체가 연결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보면 구조오의 분석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

7) 《두시상주》 卷之十二 참고.

다. 제1수의 경물 묘사에도 파도의 무서운 기세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제1수의 경우 끝 구에서 ‘마음이 넓어진다’라고 하였으니 아직 파도를 보는데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제2수에서는 술 기운을 빌어 시름을 줄인다고 하였으니 여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두려움이나 시름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연작의 형태를 빌어 표현한 것이니, 두 수의 시상 상호간의 관계는 대비가 아니라 점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수의 내용을 대비로 보지 않고 점층 관계인 것으로 보아도 그것의 연결성에는 문제가 없다. 점층은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다. 두 수가 내용상 점층 관계로 시상이 연결된다는 것은 제2수의 처음에 사용한 ‘轉’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는 ‘갈수록’ 또는 ‘바뀌어’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 ‘전’자를 사용하여 정서가 점층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전’자는 다음 구의 ‘卽’과 對를 이루기 때문에 부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갈수록’이나 ‘바뀌어’의 뜻을 갖는 이런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제1구의 첫 자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부사어는 앞에 어떤 내용이 전제되었을 때에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를 쓴 시가 단독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독자적인 시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데, 독자적일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앞 수와의 연결성을 강화해주니, 이 시의 ‘전’자는 연작시의 내용상 연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법이 잘 활용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보는 연작시에 시의 격률을 활용하였는데, 특히 대장구를 사용하여 시상의 연결을 도모하였다. 〈絕句二首(절구)〉를 보자.

[제1수]

遲日江山麗 나른한 날 江山이 아름답고
 春風花草香 봄바람에 花草 향기롭다.
 泥融飛燕子 진흙이 녹으니 제비 날고
 沙暖睡鴛鴦 모래가 따뜻해 원앙새 잠든다.

[제2수]

江碧鳥逾白 강물이 파라니 새 더욱 희고
 山青花欲然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는 듯하다.
 今春看又過 금년 봄은 보아하니 또 가고 있어
 何日是歸年 어느 날이 고향에 돌아가는 해일까?

제1수를 보면 전체가 경물의 묘사일 뿐 술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제2수를 보면 제2구까지 제1수에 이어 경물을 묘사하다가 후반 2구에 와서야 비로소 술회하였다. <회중우이수>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내용상의 안배는 시상의 연결을 도와준다.

두 수의 연결은 대장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제1수를 보면 두 연이 모두 대장을 이룬다. 그리고 제2수는 전반 두 구가 대장구이어서 시 전체를 보면 경물을 묘사한 여섯 구는 대장이고 술회한 제2수 후반 두 구만 대장을 이루지 않는 散句이다. 동질성이 있는 두 부분은 상호간에 점성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제1수의 후반과 제2수의 전반이 모두 대장구인 경우가 제1수 후반이나 제2수 전반이 산구로 된 경우에 비해 연결성을 더 갖게 될 것이다.

여덟 구로 된 율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함련과 경련 두 이웃한 연이 대장을 이룬다. 장편 율시인 배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지막 두 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대장을 이룬다. 이는 대장의 연속으로 율시의 편폭을 확장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절구이수>는 절구이지만 두 수를 합쳐보

면 편폭이 율시와 같은데, 대장의 양상까지도 율시와 같게 하였다. 이는 대장구를 활용하여 절구 연작시를 한 편의 율시처럼 짓고자 한 의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다시 〈水檻遺心二首(물가 난간에서 마음을 풀다)〉를 보자.

[제1수]

去郭軒楹敞 성곽에서 떨어져 마루가 훤히하고
無村眺望賒 마을이 없어서 멀리까지 보인다.
澄江平少岸 말간 강은 질편하여 언덕이 줄었고
幽樹晚多花 그윽한 나무는 저녁에 꽃이 많으며,
細雨魚兒出 가랑비에 물고기는 뛰고
微風燕子斜 미풍에 제비는 빗겨난다.
城中十萬戶 성 안은 십만 호인데
此地兩三家 여기는 두세 집 뿐.

[제2수]

蜀天常夜雨 촉 하늘은 자주 밤비 내리는데
江檻已朝晴 강가 난간은 벌써 맑은 아침.
葉潤林塘密 잎은 젖어 숲과 못에 뽁뽁하고
衣乾枕席清 옷은 말라 베개와 자리에 시원하다.
不堪祇老病 마침 늙고 병들을 감당하지 못하니
何得尙浮名 헛된 명성을 어찌 숭상할 수 있으랴?
淺把涓涓酒 줄줄 술을 조금씩 부어 마시며
深憑送此生 이것에 깊이 의지하여 이내 생을 보내리다.

이 시는 율시 두 수로 된 연작시이다. 제1수를 보면 네 연 모두 대장을 이루었으니 이른바 ‘對格’이다. 그리고 네 연 모두 경물묘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제2수는 전반은 경물 묘사이고 후반은 술회이다. 제6

구까지의 세 연이 대장을 이루다가 미련에서 산구를 사용하였다.

앞에서 본 〈절구이수〉와 비교해보면 내용 안배나 대장구 사용 수법이 완전히 동일하여 〈절구이수〉를 두 배로 늘려놓은 듯하다. 〈절구이수〉는 두 수가 합쳐져 한 수의 읊시처럼 보인다면, 이 〈수함견심이수〉는 두 수가 합쳐져 한 수의 배울처럼 보인다. 이처럼 절구를 연작하여 읊시처럼 짓고 읊시를 연작하여 배울처럼 지었다면⁸⁾ 이는 두보가 짧은 시를 연작하여 한 편의 장편시처럼 지으려고 의도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3. 시상의 배치

구조오는 세 수로 된 연작시를 예로 들어 시상 연결의 다른 방식을 지적하였다.

두보 시는 세 수를 연작으로 지었을 때 제1수를 주된 것으로 삼고 뒤의 두 수로 나누어 照應한 것이 있으니 예를 들어 〈羌村三首(강촌)〉, 〈自閬州領妻子却赴蜀山行三首(낭주에서 처자를 데리고 산길로 촉으로 가다)〉 및 〈秋日寄題鄭監湖上亭三首(가을날 정감의 호수 정자에 부쳐 쓰다)〉 같은 시는 은미한 흔적 속에서 그 장법의 묘를 볼 수가 있다.(杜詩三章疊詠, 有首章爲主, 後二首分應者, 如羌村, 如領妻子赴蜀, 及湖亭詩, 於草蛇灰線中, 見其章法之妙.)

제1수를 주된 것으로 하고 이하의 시로 나누어 조응한다는 것은, 장

8) 두보는 세 수 이상의 연작시에서도 대장구를 활용하여 시상을 확장하였으니, 절구 연작시를 배울처럼 지으려는 시도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줄고 〈杜甫五言絕句 연구〉 참고.)

편사에서 사용되는 장법인 ‘一頭兩脚體’와 유사한 짜임새를 이루어 전체 시상을 연결한다는 뜻이다. 구조오가 든 세 편의 시 중 고체시인 <강촌삼수>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제1수]

崢嶸赤雲西 드높이 붉은 구름 서쪽
日脚下平地 햇살이 평지로 비칠 제,
柴門鳥雀噪 사립문에 새소리 시끄러우니
歸客千里至 돌아오는 길손이 천 리 멀리 찾아와서라.
妻孥怪我在 처자식은 살아 돌아온 나를 보고 의아해 하다가
驚定還拭淚 놀란 가슴 가라앉히고는 눈물을 닦는다.
世亂遭飄蕩 세상이 어지러워 이곳저곳 떠돌았으니
生還偶然遂 살아서 돌아온 것이 우연한 일이어서,
隣人滿牆頭 이웃들이 담 주위로 가득 나와
感歎亦歔歔 감탄하다가 흐느껴 운다.
夜闌更秉燭 밤이 깊어 다시 촛불을 들고는
相對如夢寐 서로 마주하고 보니 아직도 꿈만 같구나.

[제2수]

晚歲迫偷生 만년에 구차한 삶에 쫓기니
還家少歡趣 집에 돌아와도 기쁨이 적은데,
嬌兒不離膝 사랑스런 아이는 무릎을 떠나지 않으며
畏我復卻去 내가 다시 떠날까 두려워한다.
憶昔好追涼 옛날을 생각하면 더위를 피하고자
故繞池邊樹 일부러 연못가 나무를 맴돌곤 하였는데,
蕭蕭北風勁 지금은 북풍이 거세어 쌀쌀하기에
撫事煎百慮 이런저런 일 생각하니 온갖 시름에 가슴 태운다.
賴知禾黍收 쌀과 기장을 수확한 줄 알기에
已覺糟牀注 벌써 주자들에서 술이 쏟아질 듯,
如今足斟酌 이제 술을 따라 마실 만하니

且用慰遲暮 잠시 이것으로 노년을 위로하리라.

[제3수]

群雞正亂叫 못 닭이 어지러이 울어대니
 客至雞鬪爭 손이 와 닭이 다투는 것인데,
 驅雞上樹木 닭을 몰아 나무에 오르게 하니
 始聞叩柴荆 사립문 두드리는 소리 비로소 들린다.
 父老四五人 동네 어른 너댓 분이
 問我久遠行 오래고 먼 여정을 위로하려고,
 手中各有攜 손에 각자 들고 온 것이 있어
 傾榼濁復清 술통을 기울이니 탁주도 있고 청주도 있다.
 莫辭酒味薄 “술 맛이 싱겁다고 사양하지 마시오.
 黍地無人耕 기장 밭에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랍니다.
 兵革既未息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兒童盡東征 애들이 다 동쪽으로 정벌 길에 갔지 때문이지요.”
 請爲父老歌 “청컨대 어르신들께 노래 한 곡 들려 드리리니
 艱難愧深情 고생하시면서도 깊은 정 베풀어 주시어 부끄럽습니다.”
 歌罷仰天歎 노래를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니
 四座涕縱橫 자리한 사람 모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이 시는 두보가 至德 2재(757)에 가족이 있는 강촌에 돌아가서 쓴 것이다. 제1수는 두보가 막 집에 와서 가족과 이웃을 만나고 희비가 교차하는 심정을 썼다. 제2수는 집에 돌아온 뒤 보고 느낀 것을 서술하였는데 구조오의 분석에 의하면 ‘제1수의 처자식 이야기를 이어받은 것[承上妻孥來]’이다. 그리고 제3수는 이웃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한 일을 서술하였는데 구조오의 분석에 따르면 ‘제1수의 이웃 사람 이야기를 이어받은 것[承上隣人來]’이다.⁹⁾ 즉 제1수에서 가족과 이웃을 함께 언급한

9) 《두시상주》 卷之五.

뒤 제2수와 제3수에서 각각 가족 이야기와 이웃 이야기를 이어받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구조오는 이 뿐만 아니라 제1수와 제2수, 제1수와 제3수를 결합해서 보면 근체시에서 쓰는 ‘起承轉結’의 장법이 활용되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두시는 매 수에 각각 기승전결의 장법이 있다. 그리고 같은 제명 아래 쓴 여러 수의 시도 서로 기승전결을 이루니, 이 〈강촌삼수〉는 제1수가 시 전체의 ‘起’이고 제2수는 앞의 네 구가 이에 대한 ‘承’이며 가운데 4구가 ‘轉’이고 마지막 4구가 ‘結’이다. 그리고 제3수는 앞의 8구가 ‘승’이며 가운데 4구가 ‘轉’이고 마지막 4구가 ‘結’이다.(杜詩每章各有起承轉闔, 其一題數章者互爲起承轉闔. 此詩首章是總起, 次章上四句爲承, 中四句爲轉, 下四句爲闔. 三章上八句爲承, 中四句爲轉, 下四句爲闔.)¹⁰⁾

구조오의 분석에 따르면 제1수와 제2수, 그리고 제1수와 제3수를 결합하였을 경우 시상전개가 각각 기승전결을 이루어 한 편의 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를 통해서 두시 연작시의 정교한 장법의 일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조오는 〈강촌삼수〉 등을 들어 시상의 짜임새 있는 배치로 연작시의 시상을 연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그가 두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가 거론한 예는 제1수와 제2수, 제1수와 제3수의 내용상의 조응 관계가 뚜렷한 것에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연작시가 이런 것은 아니다.

〈曲江三章章五句(곡강에서 지은 시 세 수, 매 수는 다섯 구이다)를

10) 《두시상주》卷之五.

보자.

[제1수]

曲江蕭條秋氣高 곡강 쓸쓸하고 가을 기운 높는데
 菱荷枯折隨風濤 마음이며 연꽃이 시들어 꺾여 바람에 이는 물결 좃
 을 제,
 游子空嗟垂二毛 나그네는 머리가 반백이라고 공연스레 한숨짓는다.
 白石素沙亦相蕩 흰돌 흰모래도 요동쳐대고,
 哀鴻獨叫求其曹 슬픈 기러기 홀로 울며 제 무리를 찾는다.

[제2수]

卽事非今亦非古 즉흥시는 지금 것도 아니고 옛 것도 아닌데
 長歌激越捎林莽 긴 노래 세차고 높게 수풀을 울린다.
 比屋豪華固難數 줄지어 선 호화로운 집은 실로 세기도 어렵지만
 吾人甘作心似灰 나는 기꺼이 마음을 재와 같게 하였는데,
 弟姪何傷淚如雨 동생과 조카는 무엇을 슬퍼하여 눈물이 비 같은가?

[제3수]

自斷此生休問天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가려니와 하늘에 묻는 것 그
 만두른다.
 杜曲幸有桑麻田 두곡에 다행스레 뽕과 삼 밭 있어
 故將移住南山邊 짐짓 남산 부근으로 옮겨 살리니,
 短衣匹馬隨李廣 짧은 옷과 필마로 이광을 따르며
 看射猛虎終殘年 맹호를 쏘는 것 보면서 여생을 마치리라.

이 시는 天寶 11년(752) 현종에게 부를 헌상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게 되자, 경물에서 축발된 우울한 심사를 피력한 것이다.

이 시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특이한 시제이다. 이런 시제를 사용한 것은 《시경》시의 표현방식을 사용하겠다는 뜻에서인데, 실제로 제1수

에서 興과 比의 수법을 사용하였다.¹¹⁾ 그리고 매 수가 홀수 구로 되어 있고 시의 내용도 어떤 안배 없이 내키는 대로 심사를 토로한 것 같아, 《시경》의 시가 창작된 고대에나 지었을 법한 시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런 시에도 시인은 장법을 구사하여 시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제1수의 제1, 2구에서는 흥의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레 제1수가 전체 시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시경》에서 흥은 시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흥의 수법으로 경물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마름과 연꽃이 바람에 이는 물결 따라 움직이고’, ‘흰 돌과 흰 모래도 요동치고’, ‘슬픈 기러기 홀로 울며 제 무리를 찾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경물에는 시인의 불안하고 외로운 심사가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제1수에 사용된 비흥의 수법은 제1수가 전체시의 開頭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전체시의 내용을 이끌게 한다.

제2수와 제3수를 보면 겉으로는 운명을 달게 받아들일겠다고 하지만 이는 불안하고 외로운 심사를 자위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두수의 내용은 모두 제1수를 이어받게 되니, 앞에서 구조오가 〈강춘삼수〉등을 예로 하여 지적한 제1수가 나머지 시를 이끄는 장법이 이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秋雨歎三首(가을 비에 한탄하다)〉를 통해 다른 방식을 보자.

[제1수]

雨中百草秋爛死 가을 비에 온갖 풀이 문드러져 죽는데

階下決明顏色鮮 섬돌 아래 결명은 빛깔이 곱다.

著葉滿枝翠羽蓋 잎이 가지에 가득하니 비취새 깃털 덮개인 듯

11) 《두시상주》 卷之二 참고.

開花無數黃金錢 무수한 꽃이 피어 황금 동전인 듯,
 涼風蕭蕭吹汝急 차가운 바람 쓸쓸히 네게 거세게 불어대니
 恐汝後時難獨立 네가 때를 놓치고 홀로 서 있기 어려울까 걱정스럽
 다.

堂上書生空白頭 마루 위의 서생은 부질없이 흰 머리카락
 臨風三嗅馨香泣 바람에 세 번 향기를 맡고는 눈물을 흘린다.

[제2수]

關風伏雨秋紛紛 쌀쌀한 바람과 숨은 비가 가을에 어지러워
 四海八荒同一雲 사해 팔방이 모두 한 가지 구름이니,
 去馬來牛不復辨 가는 말과 오는 소도 구별할 수 없거늘
 濁涇清渭何當分 흐린 涇水和 맑은 渭水を 어찌 분별하겠는가?
 禾頭生耳黍穗黑 벼 끝에 귀가 생기고 기장 이삭이 검어지는데
 農夫田父無消息 부역 간 농부에겐 소식이 없어서,
 城中斗米換衾裯 성 안에선 한 말 쌀을 흠이불과 바꾸지만
 相許寧論兩相直 서로 허락했으니 어찌 값이 서로 맞는지 따지겠는
 가?

[제3수]

長安布衣誰比數 장안의 벼옷 입은 사람을 누가 고려하리오?
 反鎖衡門守環堵 나무 걸친 문을 잠그고 초라한 집을 지키는데,
 老夫不出長蓬蒿 늙은이가 나가지 않아 쭉들이 자라건만
 稚子無憂走風雨 애들은 근심도 없이 비바람 속을 달린다.
 雨聲颯颯催早寒 비 소리 싸싸 이른 추위를 재촉하고
 胡雁翅濕高飛難 변방 기러기는 날개 젖어 높이 날기 어려운데,
 秋來未曾見白日 가을 이래로 태양을 보지 못하였으니
 泥汚后土何時乾 진흙 더러운 땅이 그 언제나 마를까?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을 근심하여 지은 시이다. 제1수는 決明을 걱정하고 제2수는 어려운 형편의 인민을 걱정하고 제3수는 자기 신세를

탄식하였다. 시상이 ‘자연물 - 일반인 - 자신’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탄식하는 내용이 자신에게서 거리가 먼 대상에서 자기 자신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으니, 《맹자》의 ‘자연물은 아끼고[愛物]’ ‘사람은 사랑하고[仁民]’ ‘자기와 가까운 가족은 친히 여기는[親親]’ 정신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순차적이고 점층적인 시상 전개는 그 자체가 이 시의 連結性을 확보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1수의 결명 이야기를 비유로 볼 수 있다. 즉 차가운 바람에 고통을 겪어 결국 살아남기 어렵게 된 결명을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는 일반인과 두보를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는 <곡강삼장장오구>와 같이 제1수의 비유로 전체 시상을 이끄는 형태가 될 것이다.¹²⁾

이상에서 본 것처럼 시상의 배치를 장법에 활용한 연작시가 모두 구조오가 例擧한 것처럼 내용상의 맥락이 뚜렷한 것은 아니다. <곡강삼장장오구> 같은 시는 비홍의 수법을 이용하였고 <추우탄삼수> 같은 것은 두 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그 양상이 다양한데,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시의 시상이 조용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12) 압운 방식도 이 시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매 수에 환운하여 평성운과 측성운을 반씩 사용함으로써 압운 양상에 유사성을 보였으니, 이러한 압운상의 유사성도 세 수의 시 상호간에 동질성을 부여해주었다. 또 제1수는 첫째 구에 압운을 하지 않았는데 제2수와 제3수의 첫째 구에 압운을 하였다. 홀수 구의 압운은 동일한 시 안에서 환운할 때 환운하는 곳임을 표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환운은 하여도 시는 계속됨을 알려준다. 따라서 제1수의 첫째 구에만 압운을 하지 않고 제2수와 제3수에 했던 것은 실령 그것이 우연한 것이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의 연결성을 보조하는 작용을 하였다.

4. 연작을 통한 시상 안배

이상에서 보았듯이 두보는 내용을 적절히 안배하여 연작시의 각 수를 연결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연작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八月十五夜月二首(팔월 십오일 밤 달)〉을 보자.

[제1수]

滿目飛明鏡 눈 가득히 밝은 거울 나는데
 歸心折大刀 돌아가려는 마음은 큰 칼에 꺾인 듯,
 轉蓬行地遠 구르는 쭉처럼 먼 땅을 다니며
 攀桂仰天高 계수나무 잡고서 높은 하늘 우러러본다.
 水路疑霜雪 물길에 서리와 눈이 내렸나 의심이 들고
 林棲見羽毛 숲 속 둥지에서 새가 보이는데,
 此時瞻白兔 이때 달 속의 흰 토끼 쳐다보니
 直欲數秋毫 가을에 난 털도 헤아릴 것 같다.

[제2수]

稍下巫山峽 무협으로 조금씩 내려가나
 猶銜白帝城 여전히 백제성을 물고 있으니,
 氣沈全浦暗 달 빛 기세 가라앉아 온 포구가 어둡고
 輪仄半樓明 바퀴 모양 기울어 누각이 반쯤만 밝다.
 刁斗皆催曉 조두 소리가 모두 새벽을 재촉하니
 蟾蜍且自傾 두꺼비도 절로 기우는데,
 張弓倚殘魄 활사위 매긴 병사들이 스러지는 달빛에 기대고 있는 일
 不獨漢家營 한 나라 병영만은 아니로세.

이 시는 팔월 보름의 밝은 달을 보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기 신세와 전란이 계속되는 나라를 걱정하는 심사를 읊은 것인데, 두 수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인은 내용상 여러 가지 안배를 하였다.

제1수를 보면 ‘先情後景’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였는데, 제2수는 이와 상반되게 ‘先景後情’의 방식을 사용하였다.¹³⁾ 따라서 두 수 전체의 시상은 ‘정-경-경-정’의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경물 묘사를 제1수의 후반부와 제2수의 전반부에 배치한 데에는 <산수이수> 등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질성이 있는 내용을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또 제1수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읊고 제2수는 새벽에 지려고 하는 달을 읊음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였는데 이 또한 시상의 연결에 도움을 주었다.

경물의 연속적 배치뿐만 아니라 감회의 내용도 두 수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제1수 전반에 담긴 감회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시인의 탄식이다. 그리고 제2수 후반에 담긴 감회는 전란이 계속되는 시국에 대한 걱정이다. 두보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전란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시작부분인 제1수의 전반에 담긴 내용은 이 시의 끝 부분인 제2수의 후반에 담긴 내용이 원인이 되어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1수에 담긴 시인의 감회와 제2수에 담긴 감회가 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니, 이 점 또한 두 수의 연결을 도와줄 것이다.

두보 시 전체를 보면 개인 신세에 대한 탄식과 국가 상황에 대한 걱정 두 가지가 시에 표출된 감회의 절대다수를 점한다. 그리고 이 두 가

13) 《讀杜心解》卷三之五 참고.

지 감회가 한 수의 시 속에 交織되어 표출된 예도 많다. 이 시를 보면 이 두 가지 감회가 두 수에 나뉘어 있다. 두보가 한 편을 두 수로 짓고자 했을 때 이 점을 이미 의도하였을 것이니, 이를 통해 두보가 연작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안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속에 보이는 달빛의 밝음을 묘사해 내는 솜씨, 시점에 따라 바뀌는 경물에 대한 치밀한 관찰력 등은 두보의 작시 능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상에서 언급한 장법의 정치함에 더욱 주목하여야만 비로소 이 시의 묘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니, 두시의 최고 성취가 장법 상에 있음을 이 시를 통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두시 연작시 장법의 원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연작시를 이루는 개별시 상호간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상을 안배하여 전체가 한 편의 시와 같은 짜임새를 갖게 하는 것이다. 전자는 <산수이수> 등의 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일단을 알 수 있었고 후자는 <강촌삼수>등에서 알 수 있었다. 전자의 원리는 모든 연작시에 공히 적용되나 후자의 원리는 다섯 수 이상의 장편 연작시에서 그 정치한 양상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한 연작시는 두 수 내지는 세 수로 된 편폭이 짧은 연작시였기 때문에 전자의 원리를 주로 논의하였다. 따라서 후자의 원리가 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구체적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장편 연작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편 연작시의 장법에 대하여 차후에 다른 지면을 빌어 다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

참고문헌

仇兆鰲, 《杜詩詳註》, 中華書局, 1995.

浦起龍, 《讀杜心解》, 中華書局.

王嗣奭, 《杜臆》, 上海古籍出版社, 1983.

中文摘要

杜甫曾創作出諸多連作詩，絕大多數情況之下詩人則會根據自己計劃好的構想安排個別詩的構思，從而將其連接起來，形成一個完整的統合體。即是說為了將整個連作詩捆綁為一個整體從而編織成一首詩，構想出縝密的章法。我們在早前的詩人那里根本無法覓得這種連作詩的痕跡。

對於杜詩連作詩章法之原理，可以概括為如下兩點：一個是應該確保得以構成連作詩的個別詩之間的連接性；另一個則是應該安排整體詩的構想，從而制定出類似一首詩的框架。我們在《散愁二首》等詩裏能看到前者具體的面貌；而后者則主要體現于《羌村三首》裏。

杜甫為確保連作詩的連接性，不僅安排詩的內容，而且還活用詩的格律，尤其是利用對仗尋求詩之構想的連接。